

미, EU 쇠고기 수입 금지에 보복 관세 부과

미국은 성장 호르몬이 투여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유럽연합(EU)이 내린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광범위한 EU산 제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요청을 검토해 EU산 제품에 대해 연간 1억1천6백80달러 보복 관세 부과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로크포르 치즈, 겨위 간오리 식품, 트뤼프 초콜릿 피자 등 광범위한 EU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관세 부과 품목에는 냉동 쇠고기, 돼지고기, 과일주스, 겨자 등도 포함된다. 보복 관세는 7월 29일 이후 창고에 반입 또는 반출되는 EU 제품에 부과되며 가격은 종전보다 2배 오르게 된다. (AFP통신 7. 19)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크메일 최신 수법

“당신이 ‘99년 올해의 여성’에 지명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제 연구소는 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과 업적을 높이 평가해 당신을 지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여성들에게 배달되고 있다.

이러한 특전을 얻으려면 여성상 수상 증명서를 받기 위해 2

백9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상 수법(Awards Scheme)’의 메일이 범치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기관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올해의 남성상’을 받았다고 나오지만 그들 중 어떤 사람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이런 메일을 받고 돈을 지불하기 전까진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상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없다.

정크메일(Junk Mail)은 스팸 메일(Spam Mail), 벌크메일(Bulk Mail)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받기를 원치 않는 메일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정크 메일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광고 메일** : 가장 흔한 유형으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홍보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메일을 보내는 경우다. 자사 사이트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앞으로 메일을 보내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등록하면 그때부터 더 많은 메일이 날아온다.

▶ **설문조사 메일** : 최근에 늘어난 정크메일의 새로운 유형으로 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은 이런 류의 메일이 정크 메일인지 모르고 보내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연구나 마케팅 조사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보내고 응답을 기다린다.

▶ **메일 폭탄(Mail Bomb)** :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시스템이 정상 작동이 안되도록 하거나 업무에 방해할 줄 목적으로 보내는 메일을 말한다.

▶ **행운의 편지** : 편지를 받으면 필히 같은 내용의 메일을 몇 명 이상에게 보내야만 자신에게 행운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온다고 겁을 준다.

▶ **돈벌기 메일** : ‘6천원으로 8억을 번다’는 내용있는 메일. 이런 메일도 정크 메일의 한 종류다. 메일을 받은 후 목록에 있는 몇 명에게 1천원씩 보내면 자신도 엄청난 돈을 벌수 있을 거라고 한다.

(Consumers' Institute of New Zealand)

일본, 살인 박테리아로 임신부 13명 사망

세균이 근육에 붙어 수일내로 생명을 빼앗는 이른바 ‘살인 박테리아’로 일본에서 최근 임신부 13명이 숨졌다.

일본 후생성 조사반에 따르면 임부들은 증상의 진행 속도가 빨라 발병한 14명 가운데 13명이 1일 이내에 숨졌으며 생명을 건진 경우는 한 명뿐이었다.

이 균은 감염시 보통 목이 붓는 정도지만 임부의 경우는 임신 말기에 자궁에 혈액이 대량 유입되기 때문에 균이 급속히 번져 순식간에 증세가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 ‘살인 박테리아’ 감염증은

다리 등의 근육이 부어 올라 몇 시간에서 수일내로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8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발견됐다. 일본에서는 지난 91년 이후 150명 이상의 환자가 확인돼 이 가운데 30%가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이 균은 항생 물질이 잘 듣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면 치료가 가능하면서도 의사들이 발열이나 구토, 근육통 등의 증상을 놓치지 않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7. 15)

유아용 자동차 의자 67만개 리콜

코스코(Cosco)사는 운반 겸용 유아용 자동차 시트 67만개를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시트로, 유아를 태워 들고 다니는 캐리어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의 리콜 원인은 유아를 옮기는 중 손잡이가 빠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품의 회수 발표는 전국 도로교통안전국(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및 소비자제품안전 위원회(The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그리고 생산회사인 코스코사 등에 관련 사고 문제가 제기되면서 나오게 되었다.

이제까지 이 제품으로 인해 29명의 유아가 부상을 당한 것으

로 알려졌는데 특히 손잡이 작동 불량으로 유아가 캐리어 밖으로 떨어져 나온 사고는 모두 46건이었으며 이중 25명이 부상 당했다.

코스코사는 “다른 회사 상품 중에도 손잡이 불량 문제로 ‘자동차 시트/캐리어’ 검용 제품이 리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사만이 리콜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생산 회사의 홍보 담당자는 아이를 태울 때는 항상 안전 벨트를 채워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조언하면서 이 제품은 원래 주용도가 자동차 시트로 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리콜에 해당되는 제품명은 Ariva와 Tumabout이다.

(The Wall Street Journal 7. 8)

유사시 Y2K 혼란 방지 자금으로 40조엔 방출 예정

일본은행은 2000년 컴퓨터 인식 오류(Y2K) 문제로 대규모 인출 사태가 촉발될 경우 최고 40조엔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7월 13일 공개된 은행 보고서가 밝혔다.

유사시를 대비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일본 전역의 46개 일본은행 사무소에 올 연말까지 최고 40조엔의 현금을 투입하기 위한 절차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일단 긴급 자금이 방출되면 대량 인출로 타격을 받는 시중은행에 즉각 돈이 풀려 진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서는 일본의 각종 금융기관들이 Y2K를 거의 대비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일본 은행은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에서도 Y2K를 대비해 연말까지 40조엔을 풀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에 나온 보고서에는 이 밖에 ▲Y2K 정보센터 설치▲오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24시간 감시체제 운영▲내년 1월 2일 일본은행 호스트 컴퓨터와 각종 금융기관 컴퓨터간 대규모 접속 확인 실험 실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연합 7. 14)

피부에 붙이는 피임용 패치 개발

미국의 존슨 앤드 존슨사는 한번 피부에 붙이면 1주일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피임 패치를 개발, 최종 단계의 임상 실험을 진행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피임 패치는 최신형 피임법으로 크기는 1달러 지폐의 반 정도되고 복부, 팔, 둔부 등에 붙이게 되어 있다.

존슨 앤드 존슨사는 ‘에브리 피임 패치’라고 불리게 될 이 패치는 도포된 성분이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면 경구 피임약과 유사한 작용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피임 패치는 임상 실험에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존슨 앤드 존슨사는 내년 초 식품의약국(FDA)에 판매 승인을 신청

할 계획이다. 존슨 앤드 존슨사는 경구 피임약은 매일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잊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지만 패치형 피임약은 1주일 내내 효과가 지속되어 사용이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AP=연합 7. 20)

전자상거래 업체 소비자 보호 소홀히 해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최근 발간한 전자상거래(EC) 업체 조사 보고서에서 전자상거래 업체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FTC의 보고서 ‘글로벌 일렉트로닉 마켓 플레이스’는 미국의 1백개 전자상거래 업체와 세계 18개국의 1백개 전자상거래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FTC는 이 보고서에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제품 교환, 구매 취소, 구매후 보증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부문에서 소비자 보호 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2백개의 전자상거래 업체들 중 9%만이 제품 구매 후 취소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고 26%만이 제품 교환에 관한 내용을 사이트에 삽입하고 있다.

또 FTC는 각국마다 전자상거래법이 달라 책임을 규정하기가 모호하다는 점, 각국의 언어 차이, 전자 상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공통의 화폐가 전무하다는 점 등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FTC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전자상거래 업체와 소비자간의 정보 교환 채널, 전자상거래를 위한 공통의 통화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자신문 6. 10)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 암 발생 확률 적어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은 대신 암에 걸릴 확률이 적다고 독일 암환자 구호 재단이 밝혔다.

암환자 구호 재단은 독일 피팅겐 대학 피부병 클리닉의 클라우스 쾰헬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암과 인체 면역 체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인플루엔자 감염 등을 통해 인체의 항체와 ‘킬러 세포’가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와 싸우는 과정에서 면역 체계가 강화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연구팀이 6백3명의 피부암 환자와 5백26명의 건강한 사람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과거에 결핵, 포도상구균 감염에 의한 종기, 골수 팽창, 패혈증, 폐렴 등을 앓았던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확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기, 기관지염, 헤르페스(포진), 고열을 동반한 설사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암에 걸릴 위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베를린=연합 7. 19)●